

- 주요 뉴스: 미국 트럼프, 중국에 대두 수입 중단 경고 연준 파월 의장은 양적긴축 종료 시사
 - IMF, 금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 상향. 관세 충격 및 금융 여건이 예상보다 양호
 - 프랑스 총리, 야당의 요구대로 연금 개혁 보류 제안. 정국 안정 기대 증가
 - 중국 상무부, 미국과 대화 가능. 다만 미국 법인 인수한 한화오션에는 규제 조치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美中 무역전쟁 재점화 가능성, 양적긴축 종료 기대 등이 영향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트럼프의 對中 보복 경고, 반도체 약세 등으로 하락
유로 Stoxx600지수는美中 대립 심화 우려 등으로 0.4% 하락
 - 환율: 달러화지수는 파월 의장 발언이 비둘기파적이라는 평가 등이 반영
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모두 0.3% 상승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금리인하 전망 속美中 갈등 심화 가능성에 약보합 마감
독일은 주가 하락,美中 갈등 불안 등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강화 등으로 3bp 하락
- ※ 뉴욕 1M NDF 증가 1426.7원(스왑포인트 감안 시 1428.8원, 0.15% 하락). 한국 CDS 강보합

		10/14일	10/13일	전일대비			10/14일	10/13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6,644.3	6,654.7	-0.16%	국채 금리 10y	미국	4.03%	휴장	-0bp
	유럽	564.54	566.63	-0.37%		독일	2.61%	2.64%	-3bp
	중국	3,865.2	3,889.5	-0.62%		영국	4.59%	4.66%	-7bp
	일본	46,847	휴장	-2.58%	CDS 5y	한국	25bp	25bp	+0bp
	한국	3,561.8	3,584.6	-0.63%		중국	46bp	45bp	+1bp
	달러지수	99.04	99.27	-0.23%	위험 지표	EMBI+	-	302	-
유로화	1.1607	1.1570	+0.32%	VIX		20.81	19.03	+9.35%	
환율	엔화	151.84	152.28	+0.29%		WTI유	58.70	59.49	-1.33%
	위안화	7.1372	7.1309	-0.09%	원자재	구리	502.30	514.40	-2.35%
	원화	1,431.0	1,425.8	-0.36%		금	4,142.9	4,110.3	+0.79%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트럼프, 중국에 대두 수입 중단 경고. 연준 파월 의장은 양적긴축 종료 시사

-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자국산 대두 수입 중단이 경제적 적대 행위이며, 이에 식용유 혹은 기타 중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 이는 중국과의 무역협상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기 위한 의도로 추정
- 다만, 중국 시진핑 주석과는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언급. 또한 중국과 공정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양국 간 상황도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
- 미국 무역대표부의 그리어 대표는 수출 규제 등으로 중국과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으나 양국 간 협의를 거쳐 완화될 것이라고 발언. APEC에서의 美中 정상회담을 위한 시간도 확보하고 있다고 첨언
- 한편, 연준 파월 의장은 양적긴축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으며, 은행 시스템 내에 준비금이 충분한 수준에 이르면 보유자산 축소를 중단할 수 있다고 언급. 그 시점이 수개월 이내가 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결정을 판단하기 위해 광범위한 지표를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부연
- 금리인하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면서 경제와 물가 전망이 9월 금리인하 이후에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평가. 고용이 둔화되고 있으며, 이민 감소와 경제활동 참가율 하락으로 고용에 대한 하방 압력이 커졌다고 진단
- 한편, 연준의 보우먼 이사는 9월 첫 금리인하를 시작했고, 향후 남은 2회의 FOMC에서도 동일한 방향을 유지할 것이라고 언급. 최근 인플레이션이 안정되고 있는 가운데 고용 및 경제 성장 둔화의 징후가 뚜렷한데, 이러한 여건에서는 금리인하가 경제 균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강조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IMF, 금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 상향. 관세 충격 및 금융 여건이 예상보다 양호

- 금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3.0%→3.2%)하고, 관세 충격 및 금융 여건이 당초 예상보다 양호하다고 설명. 미국(1.8%→2.0%), 유로존(0.8%→1.2%), 중국(4.0%→4.8%), 일본(0.6%→1.1%) 등 대부분의 주요국 전망 역시 상향. 한편, '26년에는 3.1%의 성장률을 기록하여 금년에 비해 소폭 둔화될 것으로 관측

■ JPMorgan과 Goldman Sachs, 3/4분기 수익 예상치 상회. 투자은행 부문이 호조

- JPMorgan의 3/4분기 주당 순이익이 5.07달러로 예상치(4.84달러) 상회. Citi와 Goldman Sachs 역시 주당 순이익이 각각 12.25달러, 2.24달러로 모두 예상치(각각 11.0달러, 1.90달러) 대비 높은 수준. 전문가들은 투자은행 부문 사업이 호조를 나타냈고, 트레이딩 부문도 예상보다 많은 수익을 기록했다고 평가

■ 프랑스 총리, 야당의 요구대로 연금 개혁 보류 제안. 정국 안정 기대 증가

- 르코르뉴 총리는 정치적 안정을 위해 연금 수령 가능 연령 인상 법안 중단을 제안. 그 동안 주장했던 연금 개혁은 대선 이후로 연기할 수 있다는 의견 피력. 정부 여권에서 야당의 주장을 수용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자, 시장에서는 정국 안정에 대한 기대가 증가. 프랑스 10년물 국채 금리는 하락(3.4%, -7bp)

■ 독일 10월 ZEW 경기기대지수, 전월비 상승. IEA는 원유시장의 공급 과잉 전망

- 10월 ZEW 경기기대지수는 전월에 비해 올랐으며(37.3→39.3), 특히 수출 비중이 높은 금속, 의약품 부문 등에서 상승. 다만, 전문가들은 중기적으로 경기 회복 기대가 있으나 미국의 관세 등 불확실성 요인들도 존재한다고 평가
- 한편, IEA(세계에너지기구)는 금년 원유 공급 전망을 상향 조정하고, 내년에는 공급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 이에 공급 과잉 여건이 지속될 것으로 추정. 한편, 금년 일일 수요 증가 규모는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관측

■ 중국 상무부, 미국과 대화 가능. 다만 미국 법인 인수한 한화오션에는 규제 조치

- 성명을 통해 미국과의 경제 및 무역 협의를 통해 의사소통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고, 일부 관계자는 실무 수준의 회의도 가졌다고 언급
- 그러나 이날 당국은 한화오션의 미국 내 자회사 5곳에 제재를 시작한다고 발표. 구체적으로 중국 내 모든 기업과 개인은 해당 회사와 거래, 투자, 기술 교류 등이 금지. 이번 조치는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가 미국 정부에 협조하여 중국의 주권과 안보, 발전에 위해를 끼쳤기 때문에 시행된다고 설명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10/15일 현지시각 기준)

- 연준 마이런 이사 및 월러 이사 발언, 중국 9월 소비자물가 및 생산자물가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글로벌 경제, 美中 무역갈등 등으로 낙관 전망 확신은 경계할 필요 - Financial Times

(The world economy in an age of disorder)

- 일부에서는 글로벌 경제가 여러 충격 요인과 불확실성을 양호하게 견뎌내고 있다고 평가. 이는 ▲예상보다 다소 낮은 수준의 미국 관세 부과 ▲미국 관세 부과에 대한 기업의 선제적 대응 ▲AI 붐으로 인한 증시 호조 등 우호적 금융시장 ▲학습효과에 따른 신흥국의 엄격한 재정 등으로 인한 정책적 펀더멘탈 개선 등에 기인
- 하지만, 다가올 미래에 대한 과도한 낙관 확신은 위험을 내포. 특히, 미국의 경우 GDP 대비 재정적자가 확대되는 가운데 중국과의 무역적자 축소 과정에서 양국 간 갈등이 심화될 소지. 다만 IMF 등은 이러한 혼란의 시기를 최빈국에 대한 경제성장 지원 강화 기회로 활용할 필요

■ 미국과 중국, 무역갈등 완화 노력하지만 보복 악순환 가능성도 상존 - WSJ

(U.S., China Aim for a Delicate Balancing Act on Trade)

-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100% 추가 관세 부과를 위협했고, 당국에서도 중국 기업에 대한 감시 및 투자 제재 강화 등의 행정조치를 검토. 하지만, 주가가 급락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유화적 메시지를 보내는 등 무역 갈등 완화를 위해 노력. 중국 또한 즉각적인 보복 성명을 자제하면서, 희토류 통제 역시 온건한 방식으로 진행하겠다고 발표. 이는 자신들의 조치가 과도했다는 점을 암묵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해석 가능
- 반면, 양국은 자신들의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의지도 동시에 피력. 이에 향후 양국 간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보복 악순환 등으로 갈등이 심화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

■ 각국 정부, 재정부채 문제의 심각성 인식 및 해결책 마련이 요구 - 블룸버그

(Government Debt Is a Global Problem)

- 각국의 재정 및 통화정책 당국은 혼란스러운 무역 시스템, 금리 불확실성 뿐 아니라 대규모 공공부채도 주의할 필요. 팬데믹 기간 급증한 공공부채는 이후에도 지속 증가. 미국은 정부 부채의 증가 속도가 생산량 증가 속도를 추월할 것으로 예상
- 특히 부채가 급증할 경우 정부 당국이 향후 경제 위기에 대응할 여력이 축소될 소지. 이는 결과적으로 장기적 무질서, 금융시장 악화 등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우려. 이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결국 지출 억제와 신규 세수 확보의 병행

■ 미국 소비자의 관세 인상 부담 수용, 결국 한계에 이를 것으로 예상 - 블룸버그

(How Much Longer Will Consumers Tolerate Tariffs?)

- 아직까지 트럼프 관세는 물가 상승 영향이 경미한 반면, 미국 관세 수입은 사상 최대 규모로 증가(1~9월, 1,650억달러)하면서 긍정적 효과가 부각. 하지만, 이는 미국 기업들이 매출 유지를 위해 마진을 줄이면서 관세 비용을 부담한 고육지책에 불과(Vanguard). 연말까지 상당한 수준(55%)의 관세 부담이 소비자에 전가될 전망
- 이에,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의 상승률은 0.6%p 추가로 올라 3.5%까지 급등할 것으로 추정(Goldman Sachs). 이는 소비자뿐 아니라 정치적 측면에서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 한편, 對中 무역 갈등 심화로 미국 소매업체들의 관세 비용 소비자 전가 의지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가계의 소비 여력은 시험대에 오를 전망

■ 美中 갈등, 중국의 AI 혁신 촉진 및 강경책 유발 등으로 전개 - Financial Times

(US-China déjà vu all over again)

■ 미국계 은행의 양호한 실적, 추가 금리인하규제 완화 등으로 지속 예상 - Financial Times

(Wall Street banks get their party hats on)

■ 유럽, 중국의 광물 수출 제한에 맞서 미국과의 협력 등 강경 대응 모색 - 블룸버그

(Europe Seeks Tough Response to China's Minerals Restric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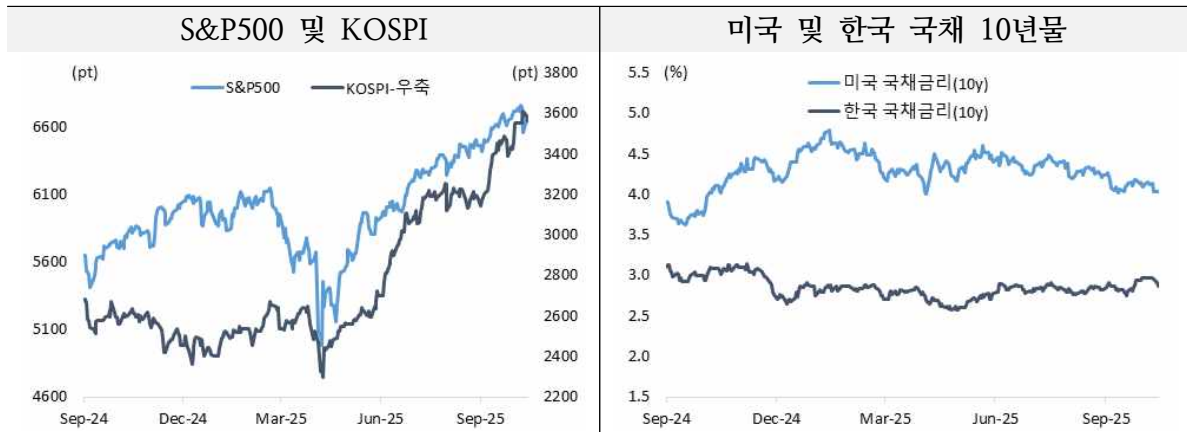
■ 중국의 對美 무역 보복, 미국계 기업 제재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 - The Economist

(China is going after American firms to hit back at Donald Trum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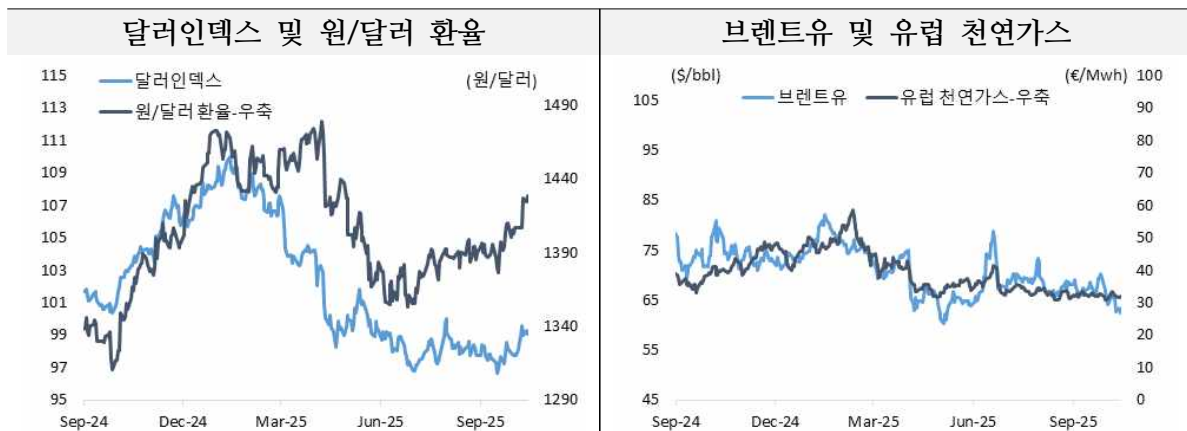
■ 중국의 독점적 희토류 생산, 공급 감소 시 세계 공급망 혼란 초래할 소지 - Financial Times

(The real risks from China's rare earths curbs)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